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문화예술을 활용한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나 문

2017년 12월

문화예술을 활용한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방안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나 문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나 문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성준 

위 원

박병욱 

위 원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년 12월



A Research on Creating Jeju Regional Villages that
Utilize Cultural Arts

Na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Hwang, Kyung Su)

This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Science

201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1. 마을 만들기의 이론적 배경	4
1) 마을 만들기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4
2) 마을 만들기 유형	6
2. 선행연구 고찰	10
1) 사례중심 선행연구	10
2) 일반적 마을 만들기 활성화 선행연구	12
III.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	13
1. 분석의 틀	13
2.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14
1) 가시리 유채꽃 마을	14
2) 대정마을 “아저씨 밴드 몽생이”	24
IV. 인터뷰 조사	34
1. 조사대상 및 범위	34
2. 조사 결과	36
1) 마을만들기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접목한 동기 및 계기	36
2) 문화예술 활동의 취지와 목적	39
3)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주체의 역할	42
4)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47

5) 공연과 마을축제와의 연계	49
6) 심층 인터뷰 조사결과의 시사점	51
V.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54
1.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	55
2. 마을의 문화예술 동아리와 전문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	55
3. 국가(행정) 혹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거버넌스 구축	56
4.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고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로의 변화	56
VI. 결론	57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	57
2. 정책 제언	58
참고문헌	61
Abstract	63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프로세스	3
<그림 2> 연구 분석의 틀	13
<그림 3> 가시리 마을의 신문화공간	15
<그림 4> 2017년 가시리 유채꽃 축제 행사 모습	21
<그림 5> 2016년 12월 “몽생이 예술제” 공연 모습	31
<그림 6> 사례 및 인터뷰 조사 결과	58

<표 목 차>

<표 1> 마을만들기의 개념 정리	5
<표 2> 마을만들기 유형	9
<표 3> 사례 중심 마을만들기 선행연구	11
<표 4> 일반적 마을만들기 선행연구	12
<표 5> 가시리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23
<표 6> 대정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32
<표 7> 인터뷰 질문 내용	35
<표 8>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문화예술을 활용한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방안 연구

지도교수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본 연구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시도는 현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시 또는 마을의 양적 성장은 반드시 새로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의 정치 환경은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마을의 새로운 질적 변화의 욕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출시킨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도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시도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전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의 추진주체, 추진대상과 지역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제주도 가시리 마을 만들기과 대정읍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사례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마을 만들기 활동가,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에 필요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마을의 문화예술 동아리와 전문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의 활용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행정) 혹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과 공공이 개입하여야 하는 부분을 협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며, 마을 만들기 정책을 행정이 기획하고 지원하더라도 주된 추진 주체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며,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전제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고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의 변화를 통하여 마을 축제는 외부인의 참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좋아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축제와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축제의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 그리고 대정이라는 지역으로만 국한하여 전국적인 확장성을 지니지 못한 채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인 가시리 마을과 마을 내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저씨밴드 “몽생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대정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직접참여자, 공연기획자, 마을 만들기 전문가, 사업추진 단장을 심층 인터뷰하여 제주지역의 농어촌 마을의 문화예술활동의 실태와 현장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을은 구성원 개개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기 이전에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욕구를 최대한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을 기대한다.

주제어: 마을만들기, 문화예술, 마을축제, 지역문화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마을은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가장 기본적 거주 단위이다. 또한 마을은 주민상호간의 교류와 상호협동을 근간으로 존립된다. 그동안 도시의 재생정책으로 혹은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을 위한 개념으로 마을 만들기가 민간차원 혹은 전문가 주도로 또는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고는 하였다. 제주지역에서도 마을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많은 성과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났다.

Richard Florida(2002)는 21세기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여 자신들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조직과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는 문화 인력들이 그러한 기반 시설과 동력이 조성된 지역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개인의 창조적 능력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핵심이 되었다기 보다는 지방 정부 위주로 만들어져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주민 참여형 문화 예술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고 외부의 전문 예술가들이 제주지역에 이주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과 크고 작은 실험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성장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적 자원이 활

용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특히, 제주 지역 내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여 지역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아리,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력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다. 이는 지역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시도는 현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선행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주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의 개념 정의와 마을 만들기의 유형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여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여러 사례를 연구하여 성공요인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나 행정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직접적 면담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특히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주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마을 만들기의 정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연구의 효시인 다무라 아키라 이론을 중심으로 마을만 들기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마을 만들기 쟁점과 주요 연구 관점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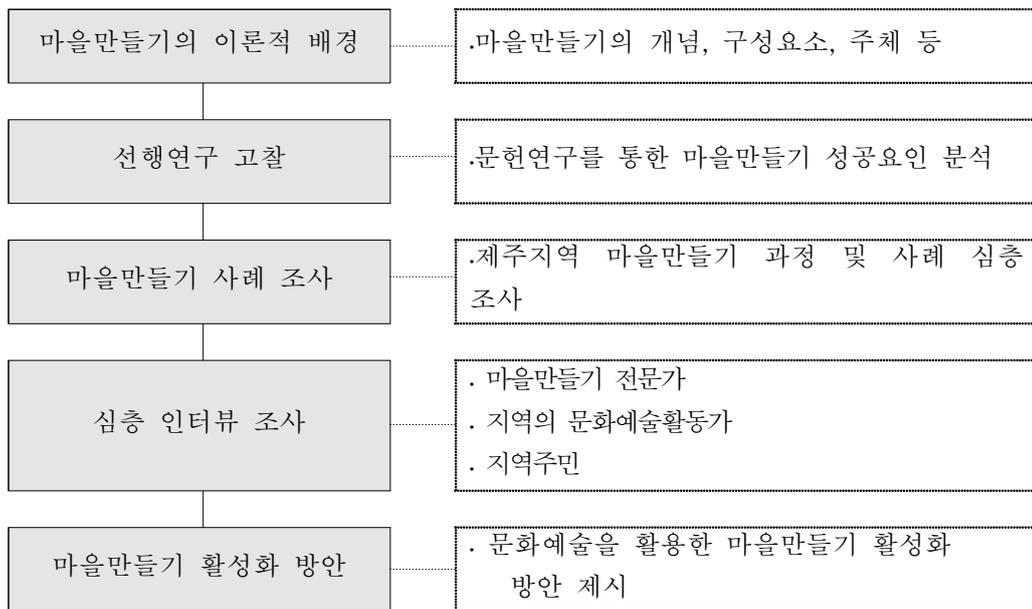
이후 본 제주지역의 마을 만들기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여러 지역 마을 만들기가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졌고, 주체가 누구인지, 그 구체적

사례에 어떠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마을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지역 내 문화예술인,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 인터뷰를 통해 제주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가와 지역주민이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분석하여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마을 만들기의 사례와 지역주민 등과 관련된 사례 조사 등은 모두 제주 지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실제 제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을 만나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인터뷰 조사가 가능하고, 실제 제주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연구의 프로세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마을 만들기의 이론적 배경

1) 마을 만들기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마을 만들기는 일본의 마찌 즈쿠리(まらづくり)를 한글로 직역하여 쓰는 용어이다. 마찌(まら)-마을 또는 가로를 의미하며, 즈쿠리(づくり)-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용어의 결합으로 일본의 나고야시 에이토 지구의 도시 재개발 시민운동 용어로 처음 사용이 되었고 이후 1975년 이후 일본 전역에서 마을 만들기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엔도 야스히로와 다무라 아키라는 마찌 즈쿠리에 대해 마찌는 단순 물리적 공간, 즉 인간의 공통체적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삶의 터전을 말하고 있다. 즉 마을 및 가로에 해당하는 유형의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내의 무형(역사, 문화, 자연, 경관, 환경 등)의 것,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¹⁾

마을 만들기는 도시라는 공간을 재생하는 공간적 의미와 삶의 터전에 문화적 색감을 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의 새로운 구심체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서성태(2002)는 주민의 생활터전에 있어서 토지의 공동이용과 공동 생활조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찬호(2002)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의 공동관리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그 계획에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활동을 마을 만들기라고 정

1) 송영호.(2006).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의 하고 있다.

최정환(2006) 마을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보고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와 공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고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운동이라 설명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의 마을 만들기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마을 만들기의 개념 정리

연구자	마을 만들기의 개념
서성태	주민의 생활터전에 있어서 토지의 공동이용과 그 위에 성립된 공동 생활조건의 정비를 목적으로 생활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하는 바람직한 지역의 모습을 달성해가는 활동 ²⁾
김찬호	주민이 지역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자원의 공동관리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그 계획에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활동 ³⁾
정석	주거지와 다양한 지역에서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는 물리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이루기와 문화 만들기까지 를 담고 있는 주민 주도의 생활환경개선 활동 ⁴⁾
문승국	각각의 지역이나 도시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사람들의 각종의 노력과 운동, 다양한 물적, 사회적, 환경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 및 이들을 유지 활용해 가는 노력이나 운동 ⁵⁾
최정환	마을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보고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와 공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고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운동 ⁶⁾

자료: 김치선.(2012).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2) 서성태(2002).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p10.

3) 김찬호(2002).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 p71.

4)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 연구. 서울연구원. : pp.6~7.

5) 문승국(1998). 일본의 주민 참가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 마찌 즈꾸리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6) 최정환(2006). 마을 만들기의 전략과 과제-지역의 재구성, 강원발전연구원: p.1.

마을 만들기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어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연구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마을 만들이란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적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활동으로 종합할 수 있다.

2) 마을 만들기 유형

마을 만들기는 성격상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 특성별로 성격도 다르다. 그런만큼 마을 만들기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체로 참여 추진 주체, 추진 대상, 지역, 내용에 따라 마을 만들기의 유형⁷⁾을 나누어 볼 수 있다.

(1) 추진주체에 따른 유형

추진주체에 따른 마을 만들기는 주민주도형, 시민단체주도형, 행정주도형, 전문가 주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주민주도형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경우이며, 주민이 먼저 시도하고 행정이 이후 지원하는 형태가 많다. 이 유형은 주민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때때로 행정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 단지 내 문화공간이나 부평시장문화거리, 서울올림픽 선수촌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두 번째 시민단체주도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전개하는 형태이다 생활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함께 자치운동을 전개해나가며 시민단체가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생활환경의 개선을 행정에 요청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는 유형이다. 삼덕동 마을만들기, 녹색아파트 만들기, 아름다운 가게 등

7) 송영호(2006).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치선(201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익산시 사례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정주(2009). 마을 만들기에서 지역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고찰.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행정주도형은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함께 전개해가는 유형이다. 사업을 먼저 행정에서 제안하거나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지역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정책을 입안하여 그것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수립하여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 마을 만들기의 유형은 전문가 주도형이다. 전문가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 중간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개진하고 반영하는 경우이다. 행정기관에서 공모사업이나 제안 접수를 통해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로서 전문가가 참여, 사업 기획, 주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전개하는 과정이다. 북촌 마을가꾸기 운동, 인사동 거리문화 축제, 생태마을 만들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추진대상에 따른 유형

마을 만들기는 추진 대상의 내용에 따라 하드웨어 만들기, 소프트웨어 만들기, 휴먼웨어 만들기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마을의 하드웨어 만들기는 마을에 공간이나 시설물을 만들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으로 마을의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 특산물 개발, 마을회관(정보화마을) 만들기,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공원 만들기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만들기는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을의 주민 조직을 구성하거나 마을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축제 프로그램 등이 해당이 된다.

세 번째 휴먼웨어 만들기는 마을의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마을 모든 사람이 마을 만들기의 주체로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교육하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의 주체로 적극성과 자발성, 지속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 워크숍 토론회 모범지역 견학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지역에 따른 마을 만들기의 유형

지역에 따른 마을 만들기의 유형에는 일반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상업지역, 역사문화 보전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에서의 마을 만들기는 아파트 주민들의 주민 공용공간인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 공간 만들거나 아파트 주민 간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축제, 이벤트, 생활 강좌, 공동육아 등의 활동을 주로 하는 마을 만들기의 형태 등 생활형 마을 만들기 유형이 많다.

두 번째 주택단지에서의 마을 만들기는 주택지 골목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차 없는 골목 만들기, 벽면 벽화, 담장 허물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세 번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의 형태는 노후 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도시 빈민가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 라기 보다는 삶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가 이주 단지를 조성하거나 주민 편의시설 설치, 화단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주거환경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 번째 상업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를 살펴보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행정기관이 정책을 만들어 시도되고 있는 경우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상권지역의 놀이공간 및 휴게시설 확보, 특색 있는 거리 상권 만들기 등이 해당 된다.

다섯 번째 역사문화지역에서는 역사적 혹은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공방,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에 생동감을 불러 일으키는 형태이다.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 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유형으로 홍성 문당리 마을, 화성 이화리 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4) 사업내용에 따른 마을 만들기 유형

사업내용에 따른 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첫째,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의 정보화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보화마을 만들기가 있으며, 두 번째 지역이 역사 문화재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로 보존지구 지

정이나 재개발을 지원하고 보행자 도로 등을 조성하여 문화거리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역사문화 만들기가 있다. 세 번째로는 마을 생태환경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생태계 재생을 위한 새물생식공간을 조성하는 생태환경만들기, 네 번째로는 주민들의 참여 아래 마을의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 경관 마을 만들기가 있으며, 이외에도 건강복지 만들기, 자원 순환형 마을 만들기 등의 유형이 있다.

<표 2> 마을만들기 유형

분류	유형	대표적 사례
추진주체	주민주도	성미사 공동체, 서초구 양지공원조성, 부평 시장내 문화의 거리
	시민단체	화성의제 매화4리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행정주도	안성마춤 아트 타운
	전문가주도	북촌마을 만들기, 인사동 거리문화축제
추진 대상	하드웨어	공원 만들기, 문화마을 만들기
	소프트웨어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축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휴먼웨어	주민 자치학교, 주민자치워크숍
추진지역	아파트 단지	도서실, 체육시설 등 공용공간 만들기, 꽃길조성, 화단 정비, 공동육아 등
	일반 주택단지	차 없는 거리 만들기, 공원 만들기, 마을 환경 개선(통학로 교통여건 조사, 마을 지도 만들기, 대기 오염 조사 등)
	상업지역	특색 있는 거리 만들기, 문화 공간 조성, 가로등 정비, 간판 정비, 인사동 역사문화탐방 등
	재개발지역	철거민 이주단지 조성(성동구 금호동 송학마을, 서대문구 무악마을, 시흥 복음자리 마을)
	역사문화지역	북촌 한옥마을, 전주 교동 한옥마을, 아산 외암리 마을 등
	농어촌지역	홍성 문당리 마을, 화성 이화리 마을, 정보화 마을 만들기

분류	유형	대표적 사례
사업내용	정보화	사이버 아파트, 양주 천생연분 마을, 여주 부래미 마을 등
	역사문화	안동 군자마을, 북축 한옥마을 등
	생태환경	부천 기러기 학교, 화성 가시리 마을
	경관	랜드 마크 만들기, 야간 조명 설치 등
	건강복지	노인복지보건계획을 수립, 케어하우스 지원 등
	자원순환	자원재생 수집센터 등

자료: 황정주(2009). 마을 만들기에서 지역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고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구성: pp.18 ~ 25.

2. 선행연구 고찰

마을 만들기를 연구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요인과 한계점 등을 연구한 것과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의 접근방법을 모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마을 만들기의 일반적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본다.

1) 사례 중심 선행연구

국내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연구한 김다희(2017)은 쇠락한 마을에서 문화마을로 거듭난 감천문화마을을 연구하면서 실거주민들과 마을전문가, 참여작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문화마을 형성이 된 후 마을 분위기 변화에 대해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 분석하였고 그 연구 분석 결과 사후 작품 보존에 대한 문제와 참여작가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야 하며, 자체 먹거리 개발, 방문객 소음, 입장료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다.

김길곤(2011)은 익산시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성공적인 마을 만

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참여의 원칙, 두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세 번째 마을 만들기 기금이나 펀드 조성, 네 번째 마을 만들기 홍보, 리더 및 주민교육, 정보교환을 위한 민간 중심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결성 및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마을 만들기 관련 모든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행정과 전문가는 지원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박소현(2008)은 월선리 예술인촌과 인천 Space Bean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마을 만들기의 예술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재생의 개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에 버려진 폐공간을 예술창작 공간을 활용하고 공동의 문화브랜드로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공간 확장 개념은 창작-배급-향유-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게 하고 문화예술과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고 있다.

민세희(2008)은 프랑스와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연구하여 문화도시 만들기 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도시의 여러 가지 요건 중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로 주민참여가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표 3> 사례 중심 마을 만들기 선행연구

연구자	마을 만들기 사례	정책 제안 시사점
김다희 (2017)	.감천문화마을	.사후보존방법 및 참여 작가 선정 개선 .먹거리 개발 .거주민과의 갈등 해결(소음, 입장료 등)
김길곤 (2011)	.진안군 마을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의 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금 또는 펀드 조성 .마을 만들기 홍보 및 리더 주민교육
박소현 (2008)	.월선리 예술인촌 .인천 Space Bean	.도시 재생을 위한 폐공간 활용 .예술인 참여를 통한 브랜드화
민세희 (2008)	.프랑스 앙골렘 마을 .일본 가나자와 마을	.주민들의 지역정체성 확보를 통한 적극적 참여

자료: 선행연구를 필자가 표로 요약·정리한 것임

2) 일반적 마을만들기 활성화 선행 연구

송영호(2006)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방안을 연구하면서 제도.환경적 측면에서 주민과 예술인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앙 정부, 지방정부, 마을만들기 추진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이 필요하고, 다양한 주민참여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동호회 같은 조직을 활용,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를 통한 지원 및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측면에서 도시 공간과 삶의 현장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운영, 다양한 형태의 레시던스 프로그램의 활용,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마을 만들기의 추진과 경험 축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황정주(2009)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방안을 연구하면서 지역문화자원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개발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하며 지역마다 문화자원을 새롭게 생산하는 창조적 노력이 사회구성원들 속에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다.

<표 4> 일반적 마을 만들기 선행연구

연구자	마을 만들기의 주안점	정책 제안 시사점
송영호 (2006)	문화예술프로그램	.주민과 예술인간의 파트너십 구축 .행정과 추진주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 다양한 레시던스 프로그램 활용 등
황정주 (2009)	지역문화자원	.주민과 문화예술가의 참여와 관심 .지역의 개별적 문화자원의 융합과 통합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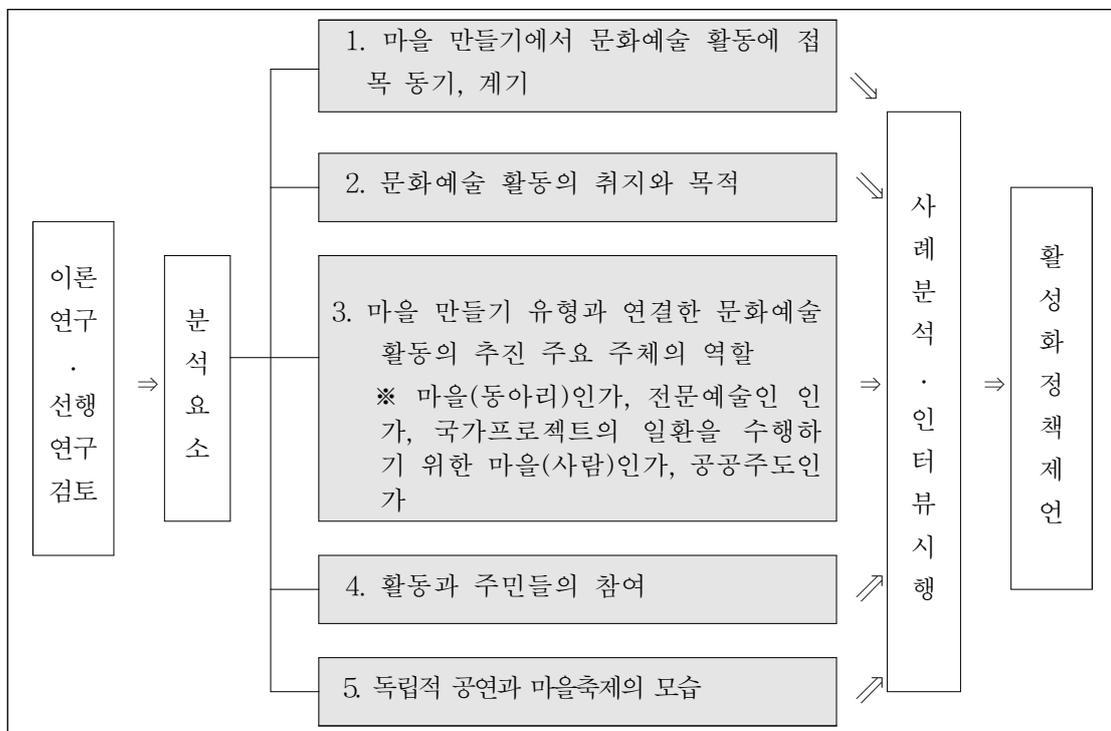
자료: 선행연구를 필자가 표로 요약·정리한 것임

Ⅲ.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

1. 분석의 틀

이론고찰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마을만들기에서 활용한 사례분석의 틀로 다음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즉, 첫 번째, 마을만들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접목한 동기 및 계기, 두 번째, 문화예술 활동의 취지와 목적, 세 번째, 마을만들기 유형과 연결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 주체의 역할(동네 사람인가, 이주민인가, 국가프로젝트의 일환을 수행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인가, 공공이 주도한 것인가), 네 번째, 활동사항과 주민들의 참여, 다섯 번째 독립적 공연과 마을축제와 연결된 모습 등 5가지의 분석요소를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기존 마을만들기 사례를 분석하고, 그 요소를 틀로 하여 인터뷰와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의 전략 혹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 분석의 틀



2.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지역적 범위를 제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제주 지역 내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연구 분석하는 관점은 제주지역 마을의 문화, 역사,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 추진 주체의 인식 등을 주요 관점으로 가시리 유채꽃마을과 대정읍 문화예술동아리(아저씨밴드 몽생이)의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마을의 문화·역사·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1) 가시리 유채꽃마을

가시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지 북쪽에 위치하여 면소재지인 표선리에서 자동차로 16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서 6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마을에는 450가구, 1,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가구 중 대부분이 전업농가로 주요 작물로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중산간에 위치해 있어 예부터 마을공동목장이 조성되어 목축업도 활발하였고, 지금은 양돈과 마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대표적인 마을 산업이다.⁸⁾

(1) 가시리 유채꽃 마을 만들기의 문화예술 접목 동기 및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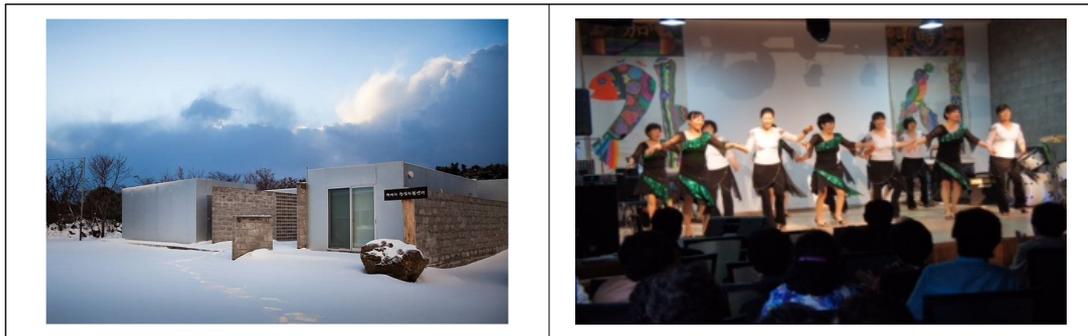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가시리는 마을 활력을 위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 사업은 문화공간의 새로운 구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방문객들이 함께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탄생된 문화공간은 주민중심의 ‘문화센터’와 방문자 중심의 ‘조랑말 박물관’, 그리고 주민과 방문객을 엮는 공간으로는 ‘창작지원센터(Artist-in-Residency)’ 등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마을 중심지에 문화센터와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신문화공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

8)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2011): 문화지도 제주 가시리.

문이며, 조랑말 박물관은 제주의 목축사를 통해 살펴본 마을공동목장 역사를 마을 박물관 형식을 빌려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자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논의의 결과였다.

<그림 3> 가시리 마을의 신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마을 내 문화시설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및 마을축제 활동 모습>



<가시리 문화센터 및 조랑말 박물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의 마을을 품다. : pp.17~20.

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문화시설이다. 문화센터의 위치와 장소는 주민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부대시설로는 연습실 겸 녹음실과 세미나실, 로컬푸드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세미나실과 로컬푸드 식당은 가변적인 개폐식 공간으로 마을잔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녹음실은 수준 높은 영상 편집과 음향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곳은 마을밴드, 타악동아리 등의 연습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랑말 박물관은 건평이 약 160평의 콘크리트 건물로 설계되어 멀리 바다경관과 한라산이 보이는 평원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가시리에서 제주시 교래리 방향의 녹산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가시리공동목장 내이다. 박물관은 접근성이 좋다. 인근에는 정석비행장과 항공관이 위치해 있으며, 너른 초원에 크립토돔이 분포하고 있고 대록산, 따라비 오름 등 오름 군락이 산재하여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창작지원센터(Artist-in-Residency)는 2010년 10월에 개관한 시설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중·단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작공간이다. 마을에서는 예술작가들에게 주거공간과 창작공간을 제공해 주고 예술작가들은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마을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화는 마을에 거주하는 예술가들과의 소통의 결과이다. 예술가들은 아이들에게 영상제작과 편집 등에 관한 교육을 해주었고, 아이들은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찍는다.

현재 창작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한 사람은 설치예술가로 그의 작품은 조랑말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창작지원센터의 입주 모집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입주한 예술작가의 50%가 제주도에 정착한다니 가시리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 마을과 지역, 제주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 교류의 장이다.

(2) 가시리 마을의 문화예술 활동 취지와 목적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3개 공간의 조성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웠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통한 정서함양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의 전통문화 등 문화자원을 발굴, 복원해 예술성 있는 특산물로 만들어 간다. 셋째,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나 잔치,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를 보여줄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론 마을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넷째,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역특산물과 관광 상품을 소

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마을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다섯째, 농촌공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성을 제고하며, 마을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가시리 마을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할 때 가장 고려해야할 점으로 세 가지 사항을 공간조성 원칙으로 삼고 있다. 첫째, 위치선정이다. 둘째, 활용도와 규모의 적정성이다. 셋째, 새롭게 조성된 공간의 유지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위치선정은 이용자,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위치나 장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 가령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마을 내부 또는 중심부에 위치시켜야 한다. 만약 마을의 외곽에 위치시킬 경우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활용도와 규모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계획/예측하여 시설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사용자, 이용자의 규모와 빈도에 맞게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건설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획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은 사후 활용빈도의 증대 방안을 고려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 유지관리방안은 계획단계에서 시설물 설치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부담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한다. 가령 소득창출이 목적이 아닌 시설은 그 자체로 유지관리비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계획단계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시리마을의 공간조성 3원칙을 바탕으로 조성되어진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문화센터이다. 문화센터는 마을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하기 쉬운 마을 중심부에 위치시켰다. 또한 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더불어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장으로도 이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00여명 규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과 로컬푸드 식당을 가변적인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문화센터는 자체 유지관리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실은 일정 사용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향

9) 지금중(2011).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활동-제주도 가시리 마을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 p.311-339.

기기는 외부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 최대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가시리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과 주체 만들기

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지역개발 역사는 80~90년대 개발붐을 타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대규모 리조트 형식의 관광개발 단지 지정과 골프장 개발은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였다. 관광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토지는 곧 바로 토지 매매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산업환경이 변화되면서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진 공동목장지나 낫자왈은 매각 대상 일순이로 팔려나갔다. 이 시기 마을공동목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대규모 토지가 개발업자에게 매각되었다. 가시리의 경우 예외 없이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매각 요구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가시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마을공동목장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갔다.

가시리 마을공동목장은 225만평의 드넓은 초원¹⁰⁾과 초원주변의 13개의 오름¹¹⁾이 위치해 있어 마 사육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는 상등마를 사육시키기 위한 곳으로 산마장(녹산장)과 갑마장으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다. 테우리들이 사용하던 테우리막이나 망루, 그리고 5km가 넘는 잣성과 습지가 잘 보존되어 제주도의 목축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가시리에서 마을공동목장(이하 공동목장) 개발에 대한 논의는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공동목장의 면적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소유관계도 복잡하였는데 당시 마을주민 48명과 마을회가 소유하고 있었다. 마을공동목장 개발논의는 바로 공동목장 소유자에 포함되어 있던 몇몇 개인명의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시키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목장 매각에 반대하였고, 마을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매각을 주장하던 일부 주민들과 마을회간의 공방은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재

10)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2011) 문화지도 제주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은 그 면적이 표선면의 총면적의 42%를 차지하며, 면내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꼽힌다.

11)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2011) 문화지도 제주 가시리: 마을 내에 설오름, 병곳오름, 따라비오름, 큰사슴이오름, 작은사슴이오름, 갑선이오름, 변널오름, 붉은오름, 여문영아리오름, 거문오름, 구두리오름, 마은이 옆 오름, 쳇망오름이 위치해 있고, 이 중 4개의오름이 마을 소유이다.

판으로 이어지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적 다툼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마을회는 재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회 소유의 오름 하나를 매각해야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던 재판은 1978년도에 이르러서야 마을회공동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 얻을 수 있었고, 공동목장 개발도 막을 수 있었다. 그때의 재판기록은 마을회에 보존되어 있다. 이로서 48명 개인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것일 뿐 마을공동목장은 마을 주민 전체 공동의 소유라는 연대적 의식이 생겨났다. 그 후에도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개발요구가 외부로부터 지속되었다.

2007년 공동목장을 활용한 개발 방안이 논의가 시작된다. 1년간 일곱 번 이상의 주민회의가 열렸고, 주민들의 의견은 “활용하되 소득이 발생 할 경우 마을 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좁혀 졌다.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활용권은 1978년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만들어진 가시리 정관상의 ‘소유권’ 과 ‘이용권’ 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공동목장은 ‘총유재산’ 으로써 개인의 지분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작된 가시리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사업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에 선정되면서 본격화 된다. 이미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와 공동목장에 대한 기본적인 연대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 또한 마을 리더와 주민들은 마을의 공공자산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조직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시작되면서 변화를 시도한다. 제주정착민 중 문화기획자가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주민조직의 실무 책임을 맡는다. 행정의 지원 속에 주민과 전문가가 결합한 사업추진조직은 신문화공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 설계는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는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4)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들의 참여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과정을 통해 마을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마을 내에 조성 된 가시리디자인카페와 문화센터, 창작지원센터는 주민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민간의 소통의 공간, 마을과 외부와의 소통 공간, 커뮤니티 예술작가들의

창작과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마을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었다. 그러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하여 나타난 변화 중 특히 지역 리더에게서 보이는 변화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적극적인 태도(적극성과 책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넘어서는 역량의 변화가 나타났다.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지는 선진지 견학은 사전교육과 팀별, 개인별 역할 분담, 견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난 후 탐방을 하도록 하였다. 견학지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사하였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에는 팀별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 의견교환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고 자연스런 피드백의 이루어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한편, 주민들의 문화 활동은 자발적 동기유발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농촌에서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업에 몰두하였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시리 마을의 문화 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변화(육망변화)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오로지 경제적 활동과 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다양한 활동, 밴드, 춤, 악, 스포츠 등을 통하여 즐거움을 갖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족감과 행복감이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생애주기별 시간과 개인의 일상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재조직화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술을 마시거나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욕구를 해결하여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키워가게 된 점이다.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업운영조직은 초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전담에서 새롭게 시작된 농촌개발조합개발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개편으로 이어졌다. 행정지원과 전문가의 참여,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체로서 가시리마을은 ‘유채꽃마을만들기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출범하기에 이른다. 이하 추진위원회는 가시리의 농촌개발종합사업을 비롯한 각종 마을사업과 위탁사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전국의 마을들은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러한 시도는 시행착오라는 교훈을 남기는데 의도되지 않은 방향과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 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 다양성은 지역의 변화에 기여하고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나름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가시리 마을 유채꽃 큰잔치의 모습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제주 유채꽃 축제가 ‘봄을 잇는-마을, 가시리’ 라는 주제로 2017년 4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조랑말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가시리의 유채꽃 축제는 격년단위로 열리고 있는데 이곳 녹산로 일대를 유채꽃과 벚꽃길로 조성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림 4> 2017년 가시리 유채꽃 축제 행사 모습



자료: 2017년 제주 유채꽃 축제 홈페이지(<http://www.jejuflowerfestival.com/>)

가시리는 신문화공간조성의 일환으로 2012년에 유채꽃 큰잔치를 유치하였다. 제주 유채꽃큰잔치는 매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그러다가 2012년도 유채꽃 큰잔치부터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서귀포시는 가시리를 축제 장소로 정하였다. 이런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유치한 배경에는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개발사업’에서 유채꽃을 테마로 한 가시리의 ‘유채꽃과 그린 에너지가 어우러지는 생명의 마을’ 사업계획이 선정된 것이 가시리가 축제 장소로 선정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처음 가시리에서 축제를 기획하면서 가시리는 축제기간과 축제운영방식, 프로그램에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축제를 기획, 추진하였다. 종래에 축제기간이 2일이었던 것을 10일간으로 연장하였고, 입장료도 징수하였다. 어린이는 2,000원, 어른은 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다시 동일한 금액의 지역화폐로 환원해주는 독특한 운영방식이었다. 축제참가자들은 지역화폐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장터에서 향토음식, 특산물 쇼핑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축제 프로그램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보였는데, ‘바람에 취한 유채꽃 길 사이로’ 라는 부제로 ‘기획전’, ‘체험프로그램’, ‘유채광장 장터’ 등 축제기간 동안 매일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각각의 축제 프로그램들은 축제장소인 가시리 마을공동목장이 지닌 장소적 특징을 살리면서 이루어졌다.

2012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가시리유채꽃큰잔치에 대한 평가는 축제기간동안의 방문객 2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잘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약 62%가 가시리의 유채광장이 축제개최지로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약 45%의 응답자가 다른 지역의 유채꽃 축제와 비교했을 때 올해 축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는 한편, 응답자의 약 80%는 재방문 의사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사를 나타냈다.¹²⁾ 이후 제주지역 2014년, 2016년, 2017년 유채꽃 큰잔치 계속되어 가시리 마을을 대표하면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다.

12) 제주도민일보 2012년 5월 29일자 기사 인용

가시리 유채꽃 마을 만들기를 본 연구의 5개 분석요소를 적용하여 결과를 아래<표 5>와 같이 정리 요약하였다.

<표 5>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

항목	분석요소	가시리 마을만들기 분석결과
1.	문화예술 활동의 동기와 계기	.국가차원의 농림수산물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선정 .주민중심 공간의 문화센터 건립 .방문자 중심의 공간 조랑말 박물관 건립 .주민과 방문객을 잇는 공간 창작지원센터 건립
2.	문화예술 활동의 취지와 목적	.주민과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문화행사 기획으로 마을 방문객 유인 .지역특산물과 관광상품 소비로 마을 경제 활성화
3.	문화예술 활동 추진주체	.국가차원의 농림수산물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선정 .전문 예술인 유인(작업실 제공 등) .마을 주민(이장, 축제추진위원장 등)
4.	활동과 주민참여	. 유채꽃 마을 마을기 추진위원회 활동 . 문화센터에서의 밴드, 댄스, 영상 동아리 연습 공연 .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경험을 통한 밋 삶의 질 제고
5.	공연과 축제	.2012, 2014, 2016, 2017년 제주 유채꽃 축제 유치

(6)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사점

가시리 마을 만들기는 주민 참여적 측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연계적 측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측면 등의 긍정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민 참여적 측면은 마을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하

기 위한 사려 깊은 논의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주민중심 공간을 배려하면서 마을의 아이들과 여성, 청.장년이 욕구를 반영한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 주민참여를 극대화 한 점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한 측면은 공동목장이라는 목축자원을 조랑말 박물관으로 조성하였고, 목축의 경계를 활용한 갑마장길 조성, 마 체험, 오름트레킹 등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하였고 주민과 정착민, 외부전문가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인 점이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측면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동아리 활성화 시켰으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시리가 제주 중산간의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창작과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 마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다.

가시리 마을만들기는 전국을 대표하는 선행 사례로서 과정을 중시하는 주민참여방법, 지역자원의 활용과 연계,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2) 대정마을 “아저씨 밴드 뽕생이”

대정읍은 제주도의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가파도와 최남단 마라도를 잇는 뱃길이 있는 곳이다. 23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2만1천명이다. 제주도 읍.면 지역은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대정읍도 제주도내 타 읍.면 지역과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지역으로 농업과 어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띠고 있다.

반면 교육, 육아, 복지, 의료, 문화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는 취약하다.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건강, 문화, 예술 등의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는 미약한 수준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에서 대정읍의 “아저씨 밴드 뽕생이”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예술 동아리의 활동 사례를 통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이 향후 마을 만들기의 좋은 유형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례

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대정마을 문화예술 접목 동기 및 계기

대정지역은 70년대말 부터 80년대 말까지 “몽생이 예술제” 를 매해 개최하였다. 지역의 고등학생 부터 청,장년들이 참여 하였는데, 당시 대정지역에는 현재의 동아리 격인 연극, 민속, 음악 등 여러개의 동아리들이 있었고 여기에 “몽생이 예술제” 기획부를 만들어서 운영되었다. 순수한 예술제 성격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고 작은 동아리들이 총 망라된 예술제다. 무대 연극 공연은 물론, 마당극, 그림 전시회, 시화전, 사진전, 노래 공연 등 예술장르도 다양하였다.

“몽생이 예술제” 는 몇 일 동안 계속되었다. 개막식은 만장(깃발)과 걸궁패를 앞세워 시가지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동네 한가운데(속칭 차부 사거리)에서 개막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읍민관을 주무대로하고 크고 작은 공간을 빌려서 시화전, 사진전, 그림 전시회 등이 열렸다. 지금으로써는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행정으로 부터의 예산지원은 엄두도 못내는 시기였다. 행사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비를 보테거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폰서 역할을 하였다. 돌이켜보면 지역주민이 축제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10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몽생이 예술제” 는 80년대말 들어서 개최되지 못하였다. 당시 대정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복합 공간으로 행정에서 관리하였던 읍민관이 영화관으로 임대되어지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주도하였던 젊은이들은 경제 생활과 아이들의 교육 등을 이유로 제주시 또는 도시(육지부)로 향하게 되면서 대정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한동안 암흑기를 거치게 되었다.

2000년 들어서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걸궁패(서육개리, 일과리 등)가 만들어지고 대정역사문화연구회, 소래패(민요), 합창단, 난타, 댄스동아리, 서각회, 밴드 동아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만들어 졌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예술 강좌, 지역별 축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들은 변변한 연습 공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하였다. 또한 동아리들이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강사의 지원, 일

상의 예술 활동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공연의 기회는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정도로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 축제 참여는 축제의 프로그램 시간을 메우는 아주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면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문화예술은 마을 공동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이다. 과거 7,80년대 “몽생이 예술제” 처럼 대정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공간에서 예술을 통하여 서로의 삶의 피로와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2) 대정마을 아저씨 밴드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활동

아저씨밴드 “몽생이”는 지난 80년대 초에서 90년대 초까지 당시 고등학교내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고 대정 마을에 거주하는 선,후배들이 다시 모여서 결성하였다. 당초 동아리를 만들게 된 취지와 목적은 선,후배간의 화합과 상부상조라는 계 모임 형태에서 시작하였지만 모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공통분모를 찾고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현재 대정 마을의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우선 교육문제, 문화생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젊은층이 제주시로 집중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감소와 노인 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마을의 인적구성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교육도시를 중심으로한 이주민이 증가로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에 이질적인 문화가 또 다른 마을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아저씨밴드 “몽생이” 정관에 따르면 “동문들의 화합과 상부상조를 토대로 회원들의 음악활동과 대정지역 사회에 문화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에 따른 사업은 첫 번째 회원 상부상조를 통한 화합 두 번째, 그룹사운드 연습 세 번째 각종 공연 및 기획사업, 네 번째 기타 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일체로 적시하고 있다¹³⁾.

뿐만 아니라 아저씨밴드 “몽생이”는 지역 사회에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13) 홍대호 외7 (2011). 아저씨밴드 ” 몽생이 “ 정관: p.1.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공연은 본 회를 유지하고 더욱 단단히 묶어내는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대정 지역 사회에 문화적 끼리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뽕생이 정기공연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각종 행사 또는 작은 음악회를 계절별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획, 운영한다.”

(3) 마을 만들기 유형과 연결한 문화예술 활동 추진주체의 역할

일반적으로 마을 만들기의 유형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 추진대상, 추진지역과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정 마을의 경우 마을 만들기 유형에 따른 구체적 사업의 형태로 접근했다고는 할 수 없다. 마을 만들기의 이론적 고찰과 연구 그리고 대정지역의 갖고 있는 내생적 자원 특히 문화 예술의 자원을 어떻게 마을 만들기에 도입하고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추진하지도 않았다. 마을 만들기의 추진 주체인 대정마을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동의 절차와 과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밴드 “뽕생이” 동아리의 결성과 활동 과정을 보면 마을 만들기에 따른 물질적 토대라 할 수 있는 마을의 내생적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 만들기의 좋은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추진 주체들의 문제의식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능력들이 훈련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저씨밴드 “뽕생이”가 대정 마을의 크고 작은 축제에 게스트로 참여하고 마을의 작은 음악회를 기획, 연출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음악회의 기획과 연출과정에서 대정 마을 내에 다양한 동아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은 대정 마을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요한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동아리 활동가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가 마을이라는 행정의 지리적 표시와 문화적 정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문화와 예술의 색감을 입히고 한 공간을 생활권

으로 하는 마을 주민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성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이라면 문화예술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마을 만들기의 유형이며 특히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가들이 추진 주체로 참여한다면 더 좋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들의 참여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마을은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문화 예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예술 활동은 노동의 고단한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은 문화, 예술을 창조해내는 동력이면서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화 예술은 사람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정 마을은 다양한 동아리들이 존재한다.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정아쭈마 난타”는 2007년 대정읍주민자치센터 난타교실을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회원수는 15명으로 각종 축제를 비롯한 요양원 위문공연 등 지역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제8회 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 제2회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모슬봉 소리패”는 2007년 2월 대정마을 50대~80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창립하였으며 회원수는 23명이다. 사라져가는 우리 소리를 복원하고 해녀의 삶을 노래와 춤으로 형상화한 창작물을 만들어 지난 2016년 서울 인사동 거리 공연 등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제주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제9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총72개팀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미라클 합창단”은 2015년 12월 대정마을 주민과 영어교육도시 이주민등 20~50대가 참여하여 창립하였으며 회원수는 30명이다. 2016년 첫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작은 마을(리)에서는 부녀회들을 중심으로 걸궁패와 댄스동아리를 만들어 마을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학 동아리, 서각 동아리, 사진 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진 “대정역사문화연구회”는 대정지역 역사유적지 답사활동과 대정읍지 발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정지역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해설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 한편으

로는 대정지역은 남,녀 2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관현악단, 국악 관현악단, 밴드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서 대정마을 문화예술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정마을에서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미약하다. 지역의 행사 또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고 축제 기획 단계에서 부터 참여하여 축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 프로그램 시간을 메우는 형태로 참여하다 보니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형화되고 박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대정 마을은 문화, 예술 활동에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일상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박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필요하다.

특히 대정마을의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인 “방어축제”에 문화예술 동아리가 준비 주체로 참여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욱더 다양하고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방어축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동호인들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대정마을의 문화와 예술 동아리 활동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몽생이 예술제

대정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동아리들이 의미 있는 공연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지난 2016년 12월 몽생이 예술제 추진위원회가 “몽생이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먼저 “몽생이 예술제”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예술제에는 “몽생이 예술제”를 제안한 아저씨 밴드 “몽생이”와 모슬봉 소리패, 대정아줌마 난타, 미라클 합창단, 대정고등학교와 대정여고 그리고 대정읍 주민자치계 담당자 등이 “몽생이 예술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동아리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2회에 걸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몽생이 예술제”의 준비위원장과 총무 그리고 기획 및 진행팀을 결정하고 몽생이 예술제의 주제,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 예술제를 통해 “몽생이 예술제”의 주제는 “문화와 예술이야 말로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언어이

다. 문화, 예술을 통해서 대정지역의 다양한 세대의 고뇌와 희망을 공유, 공감하고 함께 어깨 결고 동행할 수 있다면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14)” 대정 마을의 청소년부터 80세까지 3대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라는 점을 들어 “세대 공감 그리고 동행” 이라고 정했다.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요 예산이다. 행정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축제 혹은 행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몽생이 예술제” 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몽생이 예술제” 는 행사장 임대, 무대, 음향, 조명 그리고 홍보비와 참가 동아리들에 대한 최소한의 출연료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대정마을 출신 사업가들이 사회 공헌 사업으로 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몽생이 예술제” 의 예산 조달과 집행을 엄격히 하였다. 일회성 공연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연 사업이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몽생이 예술제” 는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개회식과 경품추첨 프로그램은 배제 하였다. 온전히 공연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중심으로 120분이라는 시간을 배치하였다. 공연의 순서는 여는 마당에는 “몽생이 예술제” 의 취지와 목적을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마당에서는 대정고 관악대 - 모슬봉 소리패 - 대정여고 댄스 - 대정여고 가야금 연주 - 대정아줌마 난타 - 대정고 댄스 - 대정여고 그룹사운드 -미라클 합창단 - 아저씨밴드 “몽생이” 공연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뒷풀이는 공연 참여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합창으로 모든 공연을 마무리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14) 몽생이 예술제 리플릿(2016). 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p.2.

<그림 5> 2016년 12월 “몽생이 예술제” 공연 모습



자료: 본 연구자가 행사장에서 직접 찍어서 보유한 사진 자료임.

“몽생이 예술제” 추진위원회는 공연 후 평가 모임을 개최하였다. 좀 더 많은 동아리들과 지역 주민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몽생이 예술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대정마을 문화예술 동아리가 공연의 주체가 되고 3대가 함께 하나의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현실에 매우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몽생이 예술제”는 사업제안 - 준비모임 - 추진위원회 구성 - 실행 -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몽생이 예술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당당하게 지역 주민의 주체성을 각인하는 계기였으며,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연합하여 협동조합 또는 마을 기업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행정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 지원 사업에서 제시하는 표준 유형 중 하나인 문화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내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연합하여 지역 내 크고 작은 문화예술 공연을 만들

어내고 마을이 지속가능하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지역주민이 행복을 느끼고 삶의 질을 몸소 체험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측면에서 지역내 동아리 활동의 좋은 사례이다.

앞서 분석한 대정 마을 만들기를 본 연구의 분석요소의 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6>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6> 대정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

항목	분석요소	대정마을만들기 분석결과
1.	문화예술활동의 동기와 계기	.70~80년대 매해 개최되었던 “몽생이 예술제” 계승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예술강좌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욕구 분출
2.	문화예술활동의 취지와 목적	. 지역주민 선.후배와의 만남과 소통 . 마을주민 스스로의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 . 지역주민과 영어교육도시(외지인)과의 갈등 해소
3.	문화예술활동 추진주체	. 지역주민(선.후배)를 주축으로 시도 . 마을 부녀회, 지역 학교 등으로 추진주체 확대
4.	활동과 주민참여	. 대정 이춤 난타, 모슬봉 소리패, 미라클 합창단, 아저씨 밴드 . 대정 역사문화연구회
5.	공연과 축제	. 2016년 몽생이 예술제 개최

(6) 아저씨밴드 몽생이 동아리 자발적인 활동이 주는 시사점과 의의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이다. 마을 만들기는 마을의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계획과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질을 담

보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현실화 시켜내는 주체는 마을 주민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공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 만들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림을 그려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이 필요하며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바로 마을 구성원인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정아저씨 밴드 몽생이 동아리 활동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지역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정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들과 함께 공동의 사업인 “몽생이 예술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와 피드백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마을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참여주체라고 한다면 대정지역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 특히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IV. 인터뷰 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분석요소로 첫 번째,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접목한 동기 및 계기, 두 번째, 문화예술 활동의 취지와 목적, 세 번째, 마을 만들기 유형과 연결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 주체의 역할(동네 사람인가, 이주민인가, 국가프로젝트의 일환을 수행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인가, 공공이 주도한 것인가), 네 번째, 활동사항과 주민들의 참여, 다섯 번째 독립적 공연과 마을축제와 연결된 모습 등 5가지의 분석요소를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기존 마을 만들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요소를 기본 분석 틀로 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의 전략 혹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 심층 인터뷰는 제주의 대정, 안덕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을 대정, 안덕 지역으로 한정된 이유는 본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과 마을 축제의 연계성 등을 조사하기 용이하고 또한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는 대정, 안덕 지역 내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있는 서광동리 “광해악 예술단” 뮤지컬 동아리 참여자와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단장, 앞서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대정읍 아저씨밴드 “몽생이” 회원, 마을 만들기 전문가, 문화기획자이면서 공연 연출가 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 11월부터 약 한달 동안 실시하였고, 대상자에게는 조사의 목적과 주요 인터뷰 질문내용을 사전에 미리 이메일로 보낸 후 일대일로 직접 찾아가 방문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동아리 회원과 함께 대정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기도 하였다. 인터뷰 심층조사의 분석요소에 따른 인터뷰 질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인터뷰 질문내용

분석요소	인터뷰 질문 내용
1.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접목한 동기 및 계기	1. 지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은? 2. 지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문화예술 활동의 취지와 목적	1. 문화예술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문화예술 활동이 마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요?
3. 마을만들기 유형과 연결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 주체의 역할	1. 국가(공공기관)차원의 지원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원의 필요성은? 2. 지역 문화예술인 유치 또는 활동하기 위한 환경 조성은 필요한가요?
4. 활동사항과 주민들의 참여	1.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시나요? 2. 주민참여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5. 독립적 공연과 마을축제와 연결된 모습	1. 주로 어떠한 공연을 하나요? 2. 마을축제와 연계된 공연이 이루어 지나요?

이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8>와 같다.

<표 8>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자	성명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특성	비고
1	허○○	60대	남	안덕	농업	뮤지컬 참여자	대면 2회 전화 2회
2	허○○	50대	남	대정	농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단장	대면 2회 전화 3회
3	홍○○	50대	남	대정	직장인	아저씨 밴드 몽생이 회원	대면 4회
4	나○○	40대	남	대정	직장인	마을 만들기 전문가	대면 3회
5	정○○	40대	여	서귀포	예술인	공연연출 및 문화기획가	질문지 전화 2회

2. 조사 결과

1)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접목한 동기 및 계기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요소인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접목한 동기 및 계기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과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인터뷰 대상자는 참여 동기 및 필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젊은 시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뮤지컬 공연 참여자는 예전 소인극(연극)을 하였다고 했고, 아저씨 밴드 몽생이 회원은 고등학생 시절에 동아리 활동으로 밴드부에서 활동했었다고 하였다. 즉 학생시절의 문화예술 활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인 대정지역에서는 특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만한 별다른 공간이나 계기가 없는 상황임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삶의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새로운 즐길 거리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안덕면 서광동리에서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였던 허○○와 아저씨 밴드 몽생이 회원 홍○○는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동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나는 젊은 시절 소인극(연극)을 했었다. 고향인 대정에서 4-H활동을 할 당시이다. 제주도 대회, 전국대회에도 참여를 했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지금 농사일로 아이들을 키우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처럼 먹고사는 것에 아동바둥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뭔가 좀 즐기면서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은 아주 중요하다. TV에서만 보는 것들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힐링시켜 준다. 실제 지난번 서광동리 아주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많이 느꼈다. 뮤지컬 공연까지 약 1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대본, 노래, 연기, 춤의 기초 동작까지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공연에 참가하는 마을 주민들은 신청자를 먼저 받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이었다. 30세에서 70세까지 약 25명 정도가 참가, 출연했고, 청년회 회원들이 스텝으로

보조해 주었다. 공연의 제목은 “광해악의 노래”이다. 내용은 조선시대 서광동리 마을이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창작뮤지컬이다. 제주목과 대정현을 잇는 길목(지금 넓게 오름 근처이다.” 비석거리 “라고도 한다.)인데 관리가 꼭 넓게오름 옆 비석거리에서 쉬어간다. 현감이나 유배 오는 사대부겠쥬. 이럴 때면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고 이런 저런 뒤치닥 거리를 하면서 겪은 고초와 삶의 애환을 뮤지컬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서광동리 뮤지컬 공연 참여자 허○○

“지역에 있는 작은 농산물가공 회사에 다니는 저로써는 저녁 그리고 주말에 여가 생활을 즐길만한 것이 없었다. 특히 문화생활을 즐길만한 꺼리가 없다. 공연이든 영화 관람이든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시간 가량 차를 타고 제주시로 가야하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도시(제주시)에 비해서 농촌지역(대정읍)은 이러한 것이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7080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 80년대 초에 농촌지역 고등학교에서 밴드 동아리는 아주 생소했지만 선배 중에 기타, 피아노 연주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은 동네 클럽(술집)에서 직업으로 밴드 리더로 활동하고 계셨다. 그분의 도움으로 동창 몇 명이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고 후배들까지 밴드 결성을 해서 약 10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 당시에는 제주도 서부지역(대정,한경) 고등학생들이 RCY축제, 대정지역 몽생이 축제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일년에 두번 공연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연습하기도 했었다. 이런 추억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대정에 살고 있는 선,후배들이 처음에는 친목계 형태로 모이다가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3년도에 결성해서 이제 5년째 활동하고 있다” _ 아저씨밴드 몽생이 회원 홍○○

마을 만들기 전문가인 나○○은 작은 마을에서도 문화소비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지역내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예술 활동 수준도 낮은 단계라고 지적하면서 마을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계기는 첫 번째 성장과정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활동이고 두 번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의 누리고자 하며, 세 번째 외부에 의한 촉매제가 기회가 되어 참여하기도 한다고 답변하였다. 공연연출 기획자인 정○○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문화예술 활동은 자존감, 성취감, 창의력, 친밀한 소속감, 협동감 등이 만들어 지고

그것을 통해 일상생활의 활력을 느낄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잘노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며 마을 사업들이 주목을 받는다고 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주민이 증가하고 마을내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작은 마을내에서도 도시와 다르지 않는 문화 소비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예술 활동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마을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계기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장과정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한 사람들의 활동이다. 둘째,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한다. 셋째, 외부에 의한 촉매제가 기회가 되어 참여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경우 문학동아리, 예술동아리의 형태로 변화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을 갖을 수 있다.” _ 마을만들기 전문가 나○○

“문화예술 활동은 크게 개인적인 여가로의 활동과 마을 만들기라는 공적기금이 투입된 마을 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의 효과는 자존감, 성취감, 희열, 창의력 등이 높아지고, 친밀한 소속감, 협동심 등이 만들어지며 그것을 통해 일상생활의 활력을 느끼게 된다. 마을사업의 경우,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아름다운 경관(자연)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디자인, 이야기 등이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끌어내고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문화예술을 통해 잘 노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단단해 지고, 사람들의 다양한 미적 욕구를 반영시킨 마을 사업들은 주목받게 된다.” _ 공연연출 및 문화기획가 정○○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접목한 동기를 인터뷰한 결과 제주지역의 읍, 면 지역의 경우 동지역과 비교하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취약하고 문화예술 또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 읍, 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제한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각하고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의 예술 공연을 기획한다든지 스스로 문화예술 동아리들을 만들어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주민들

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욕구를 분출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문화예술 활동의 취지와 목적

두 번째 분석요소는 문화예술 활동의 취지와 목적이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의 목적과 문화예술 활동이 마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 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이면서 다소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¹⁵⁾ 추진 단장인 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정지역 조선시대 말기 유배문화, 제주최대 규모의 일본군 전쟁유적, 한국전쟁유적, 4.3유적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자원을 가지고, 송악산과 가파도, 마라도 등 자연환경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대정지역이며, 다크투어리즘을 관광산업화 하여 1차 산업과 연결시키고자 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역량이 상당부분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한달에 2회 강사를 초대하여 강의 토론하였고, 대정지역내 역사 문화 동아리가 생겨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또는 마을의 이익을 따지고 각종 유언비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판매장, 다목적 강당 등의 유지 보수 문제도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지역내 문화예술 활동의 자아존중감과 개인의 행복에 큰 활력소가 되고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아저씨 밴드 몽생이 회원인 홍○○은

15)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란 당초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의 8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정읍 상모리 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마을을 문화, 예술, 복지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대정읍 상모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근현대 전쟁유적(중동군포로수용소, 대촌병사, 비행장, 격납고, 진지동굴, 예비검속 학살터 등)을 다크투어 사업으로 묶는 주제로 추진한 사업임. 허재령(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단장)의 인터뷰 중에서 인용

몇 번의 공연으로 마을의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밴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고 있다. 처음에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서 시작되었지만 많은 마을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까지 오면서 친목은 물론 공통된 취미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는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뮤지컬 참여자 허○○는 농사일에 지쳐 익숙하지 않은 모습에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공연이 끝난 후 지역에서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우리 마을을 위해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도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별도의 상설 예술동아리를 창립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공연연출가인 정○○는 서광동리의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뮤지컬인 “광해악의 노래”를 연출하였는데 이 뮤지컬은 마을의 전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자는 이장님의 생각과 의지에서 시작되었고, 평소 일만 하였던 지역주민 40대~70대 주민들이 모여 생전 처음 춤, 노래, 연기 등을 경험하면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하였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 나○○은 문화예술 활동은 사람들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며 문화예술 활동이 많아질수록 마을도 밝아진다고 하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마을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변화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문화예술 활동은 대부분 지역주민 마을에 긍정적 효과와 변화를 가져오며, 개인의 성취감은 물론 마을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다. 한달에 2회 저녁시간에 여러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고 토론하고, 해외연수, 국내연수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였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 과정 마다 반드시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대가 너무 큰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들은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에 따른 개인 또는 마을의 이익을 따지고 이런저런 유연비어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관건은 사람이다. 지역 주민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진 판매장, 다목적 회관의 관리, 운영(유지 보수)의 문제등도 현실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업 종료 후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든다.” _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추진단장 허○○

“몇 번 공연하고 마을의 큰 변화를 기대한다는 건 조금 욕심이 과한 듯하다. 우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였는데, 이제는 되도록 많은 마을분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아리 회원 가족들과 이시돌 양로원 등 자원봉사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고 있는 듯 하다.” _ 아저씨 밴드 몽생이 회원 홍○○

“ 처음에는 농사일에 지쳐서 연습시간이 짜증나고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창피하기도 했다. 동네어른들과 젊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연 연습이어서 더 그랬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다. 나 뿐만 아니라 공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분위기와 사람들이 익숙해졌다. 공연이 끝난 후 언론과 방송 그리고 주변의 관심은 대단했다. 우리 동네 경사 났다고 말 할 정도였다. 이렇게 주목 받아 본적이 없다. 나를 비롯한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TV에서만 보던 고급진 뮤지컬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생겨났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우리 동네가 대외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꼈다. 또한 전국 마을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우리가 최고상을 받아 10억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다. 우리 마을 위해서 내가 나름 역할을 해냈다는 자부심도 생겨나더라. 그래서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광해악 예술단”을 창립하기도 했다.” _ 서광동리 뮤지컬 공연 참여자 허○○

“ 2016년 안덕면 서광동리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뮤지컬을 연출했다. 24명의 마을주민들이 배우로 출연하고 준비기간은 약1년 정도 걸렸다.(뮤지컬 ‘광해악의 노래’ 2016년9월23~24) 이 프로젝트는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자는 이장님의 생각과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평소 열심히 일만 했던 40~70대 주민들이 모여 생전 처음 춤, 노래, 연기 등을 경험하면서 5개월의 연습기간을 거쳐 뮤지컬을 완성(30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감과 성취감, 협력은 일상에 활력을 주었고 공연 당일 500여명의 사람들 앞에서 환호와 박수를 받은 그날은 주민들에게 최고로 행복한 날로 손꼽는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마을 이름이 알려지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생겨났다. ”

_ 공연연출 및 문화기획가 정○○

“문화예술 활동은 사람들의 관계를 촉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며 도구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공감하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 활동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목표 또는 가치로 살았던 시대는 지났다. 먹고 살만한 세상이다. 살의 질은 여유로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에 있다. 여유로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달성하는데 문화 활동, 예술 활동 등 여러 가지 취미활동 만큼 좋은 것은 없다.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이 다양하고 많아지면 마을도 밝아진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마을의 정체성이나 자부심도 높아져 활력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_마을만들기 전문가 나○○

두 번째 분석요소인 문화예술 활동의 취지와 목적을 인터뷰한 결과를 살펴보면, 마을 만들기는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의무와 역할을 자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서광동리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진 뮤지컬 공연 “광해악의 노래”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은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서광동리 라는 작은 마을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어 공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역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3)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 주체의 역할

세 번째 분석요소는 마을 만들기 유형과 연결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 주체의 역할이다. 마을의 문화예술 활동에 국가와 공공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와 그 필요성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 유치와 활동을 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국가 및 공공차원의 지원

앞서 마을 만들기 사례로 조사한 가시리 마을처럼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가차원의 공공 지원사업이다.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단장인 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80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대정읍과 서귀포시청 등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 받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행정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여전하다고 걱정하고 하고 있었다. 서광동리 뮤지컬 동아리 참여자 허○○과 아저씨 밴드 몽생이 회원인 홍○○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예산의 지원으로 보조금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용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정부 혹은 공공의 지원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전문가 나○○은 공공영역의 지원은 필요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면서 공공영역의 지원으로 사업이 경직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공연연출가인 정○○은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공적자금에서는 일정부분 개인비용 부담도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8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고 2017년 11월 현재 약 28억원 정도 집행한 상태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부터 대정읍과 서귀포시를 비롯하여 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았다. 지역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걱정이다. 이러한 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_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추진단장 허○○

“지자체 지원에 대하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뮤지컬 공연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 뮤지컬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마을에는 뮤지컬을 한번 봐본 사람도 없거니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다.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데 대본을 쓰기위해서는 사료

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대본으로 만들고 춤 선생, 노래선생, 분장과 앰프 시설 등 준비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1년 가까이 연습하면서 간식 먹는 일까지 지원금이 없었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단 활동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구책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활동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행정의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할 수는 없다. 활동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_서광동리 뮤지컬 공연 참여자 허○○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을 하여 예산을 받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제약이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 악기 구입은 동아리 활동 시작하면서 하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등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습만 하다 보니 동아리 회원들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회의가 일기시작 했고, 서로가 지치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역 내에서 작은 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길을 찾다보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내 크고 작은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최소한에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정보의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_ 아저씨밴드 몽생이 회원 홍○○

“공공영역의 지원은 필요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고 본다. 공공영역의 지원은 예산 지원의 경직성과 사업비 집행근거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경직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마을의 특성, 사업의 특성 등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공공기관과 마을 사업 주체들간의 사업을 보는 시각과 업무처리 방식의 상호 교감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 _ 마을만들기 전문가 나○○

“제주도의 경우 개인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을 찾아나서기엔 도심외 지역의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다. 또는 공간은 있으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지원도 필요한데 공적자금을 100% 지원하기 보다는 일부는 개인 비용 부담(일부 특정계층을 제외하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 공연연출 및 문화기획자 정○○

세 번째 분석요소 중 마을만들기에서 국가 및 공공차원의 지원을 인터뷰한 결과를 살펴보면 읍, 면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재단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시 지역내의 문화예술 자원 또는 문화예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2) 지역 문화예술인 유치와 활동을 위한 문화 환경 조성

지역 마을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인의 유치와 연계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지역내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는 전문적인 문화예술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인 뿐만이 아니라 문화기획자도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직업으로서 문화예술가를 유치하는 것과 단순한 연계만을 위한 유치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조성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뮤지컬이라는 생소한 예술을 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문화예술인(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마다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다 보면 전문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느낀다. 일정한 시점에는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이 무작정 우리 마을에 오지는 않는다. 그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왕성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본다.” _ 서광동리 뮤지컬 공연 참여자 허○○

“문화예술인 유치는 아주 필요하다. 그러나 많이 힘들다. 문화예술인들을 유치 또는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 정주 공간과 경제적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돈에 가치로 평가할 수 없지만, 도시와 차이 있는 공동체적인 정서, 포근함, 환경적으로 깨끗함 뭔가 마을에 살면 편안하고 생활 속에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 대정읍 농촌중심지 사업추진 단장 허○○

“음악을 하다보면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 부족함을 개개인이 유튜브나 이런저런 관련 자료를 보면서 연습하는데 많이 힘들고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대정지역에 음악학원이라도 있으면 이를 이용하면 될텐데 이조차 없습니다. 해서 제주시 음악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힘듭니다. 문화예술인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들이 지역에서 정주한다면 이들에게 정주공간과 경제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다만 최근 제주에 이주해 오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과의 교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_ 아저씨밴드 몽생이 회원 홍○○

“지역 내 문화예술인의 유치는 인위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화기획자가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 예술적 요소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로서 문화기획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기획자의 연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문화 활동, 예술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역할로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_마을만들기 전문가 나○○

“환경조성은 필요하다. 예술행위, 연희자의 경우 아마추어와 프로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생활예술인지 업으로 삼는 전문예술인지에 따른 환경조성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_공연연출 및 문화기획자 정○○

지역 문화예술인 유치와 활동을 위한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인터뷰 결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읍,면 지역의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강사의 지원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또는 문화기획자, 또는 전문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작 공간을 만들어 전문 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구체화하는 사례는 지역의 문화 환경 조성에 유익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4)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

네 번째 인터뷰 요소는 문화예술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호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 문항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주로 동아리 형태인 뮤지컬 동아리, 밴드, 문화역사동아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이 참여의 형태에 대해서는 서광동리의 뮤지컬 동아리는 서광동리라는 작은 마을의 특성상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 사람 모두를 참여시키고 있어 마을 동아리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아저씨밴드 뽕생이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위문공연 등을 하기도 하고 마을청년회와 연계하거나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해 대정역사문화연구회를 내년엔 창립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 나○○과 공연문화기획자 정○○는 문화기획자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문화공연기획자는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발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의 욕구가 연계되어야 하고, 마을자원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 준다.” _ 서광동리 뮤지컬 공연 참여자 허○○

“내년에 대정역사문화연구회를 창립하려 한다. 기존에 대정역사문화연구회가 있으나 이런 저런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회를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다. 대정지역 내에 크고 작은 문화예술 동아리들도 많이 활성화 되어서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크투어 축제를 열고 싶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들과 지역 주민과 학생, 관광객이 참여하는 다크투어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에서 작은 소공연과 타크투어를 통해서 느끼는 소외를 함께 공유하는 축제를 계절별

또는 역사 테마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추진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대정지역의 역사문화를 잘 정리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우리 지역을 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고 경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_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단장 허○○

“매주 1회 연습을 하고 마을축제와 연계한 공연도 하고 독자적인 공연 기획(120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동아리 회원 가족들과 양로원에 위문공연을 가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하는 위문공연은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기타 강습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자체 공연을 기획할 때는 마을 축제와 연계한다거나 마을회, 마을의 청년회와 함께 기획하고 대정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을 대부분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_아저씨밴드 뭉생이 회원 홍○○

“문화기획자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 수행 그리고 기초 자원을 발굴하고 함께하는 방안을 찾는 역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여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욕구가 반영될 때 자연스러운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며, 인위적이고 당위적인 참여는 처음에는 가능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끊임 없이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어야 참여가 지속가능해질 것이다.” _마을만들기 전문가 나○○

“마을자원조사를 주민들이 함께 하기도 하고 마을자원 활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워크숍형태). 관심이 곧 시작이다. 축제의 경우, 운영의 일부를 주민들이 담당하도록 한다. 운영 매뉴얼에 맞게 교육을 하고 실천한다. 주민들의 참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다. 지역의 리더로 참여하든, 자발적인 참여든 함께하는 협업의 중요함을 익혀나가는데 있어, 눈앞의 개인의 편의와 이익 보다는 공공을 생각하는 훈련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다” _공연연출 및 문화기획자 정○○

네 번째 분석요소인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인터뷰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두려움이 앞서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

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쉽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예술 장르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과거 직접 문화예술 활동 경험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호기심과 욕구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기획가 등 전문 예술인들과 지역주민 또는 지역의 동아리들 간에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다.

5) 공연과 마을 축제와의 연계

다섯 번째 인터뷰 요소는 문화예술 활동의 독립된 공연활동과 마을축제와 연결된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분석요소에 대한 질문내용은 주로 어떠한 공연을 하였는가 혹은 어떠한 공연이 필요한가와 그러한 공연은 마을 축제와 연계한 공연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주요 질문하였다.

서광동리 뮤지컬 참여자 허○○은 “광해악 예술단”이라는 뮤지컬 동아리를 통해 동광리, 서광리 관광지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아쉽게도 지역 내에는 별다른 축제가 없어 축제에서 공연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였지만, 인근 지역의 축제에 적극 연계하고 싶다고도 하였다. 이는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다크리즘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단장 허○○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크투어 축제를 개최하고 싶다고 하였다. 아저씨 밴드 몽생이 회원 홍○○은 대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추사예술제나 몬드락 축제, 방어축제 등 지역내 크고 작은 모든 축제의 공연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 재능기부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내 축제에서 문화예술 공연은 작은 양념정도로만 그치고 있어 축제 기획단계 부터 함께 참여하고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 나○○은 지역의 축제는 외부인이 많이 찾아오는 축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재미를 느끼는 축제의 형태로 거듭나야 만족도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축제에서 보다 많은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연문화기획자 정○○은 지역 축제에서 문화예술 공연은 사전기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축제에서 공연, 전시, 체험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공연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광해악 예술단”에서는 인근 마을인 서광리, 동광리에 있는 광광지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서광동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뮤지컬 연습을 하며 주민들이 매일 만나게 되니까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일거양득일 것이다. 우리 마을에는 축제가 없다. 인근 마을에 축제가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여 함께 하고 싶다. 그러나 공연자가 되어보아야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지역 축제에 외부 초청가수 또는 이런저런 공연자를 초청하고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지역내 동아리들과 최대한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문화예술 동아리가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참 잘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_ 서광동리 뮤지컬 공연 참여자 허○○

“대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크투어 축제를 열고 싶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들과 지역주민과 학생, 관광객이 참여하는 다크투어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에서 작은 소공연과 타크투어를 통해서 느끼는 소외를 함께 공유하는 축제를 계절별 또는 역사 테마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추진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대정지역의 역사문화를 잘 정리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우리 지역을 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고 경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_ 대정읍 농촌중심지추진 단장 허○○

“대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추사 예술제, 몬드락 축제, 방어축제 등 대정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에 참여하여 공연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자체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몽생이 예술제와 가을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주최하는 공연에 게스트로 재능기부라는 형태로 참여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모든 축제에 양념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되도록이면 마을축제 기획 단계에서 부터 참여하고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기획자 또는 마을의 축제위원들의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우

리 문화예술인들이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축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좀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_ 아저씨밴드 몽생이 회원 홍○○

“마을 축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축제하면 축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부인이 찾아오는 축제를 기대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변화되는 모습중에 하나는 스스로 좋아하고 즐기는 축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도 공연도 함께 하고 재미를 느끼는 공연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마을의 경우 주민 중심의 한마음 축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_ 마을만들기 전문가 나○○

“마을축제와 연계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먹거리 등 많은 장르가 결합된 산물이다. 하나의 공연이 발전해 축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축제에 공연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단, 공연의 경우 장소, 공간에 대한 사전기획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실내용 공연으로 만들지 실외용으로 할지, 이동식 공연으로 만들지 고정식 공연으로 만들지...그것에 따라 같은 주제여도다른 색깔의 작품이 창작된다” _공연연출 및 문화기획가 정○○

다섯 번째 인터뷰 요소는 문화예술 활동의 독립된 공연활동과 마을축제와 연결된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 대부분은 문화 예술을 보고 느끼는 수요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주민들의 자존감과 행복감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축제에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기획단계에서 부터 세심한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마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중심이 되고 축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지역 축제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심층 인터뷰 조사결과의 시사점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에 여러 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주민 혹은 전문가 등을 약 한 달에 걸쳐 인

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분석결과 분석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창시절의 문화예술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문화예술의 욕구가 강하며, 조건과 상황이 된다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직접 생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과 마을 단위에서 추진하는 문화 예술 공연에 참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정 아저씨 밴드 몽생이 참여자와 서광동리 뮤지컬 동아리 참여자 역시 학생시절의 문화예술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화예술 활동 경험에서 얻는 만족감은 과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얻었던 만족감 보다 더 높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의식도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있었고 전문가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도 도시와 다르지 않은 문화예술욕구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예술 활동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각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요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전문가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예산과 비용의 부담은 대부분 공적자금을 통해 이루고 지고 있었다. 뮤지컬 공연, 마을의 작은 축제 또는 공연 등 사업 규모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 또는 지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지자체 보조금, 국비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사업이 경직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넷째, 더 많은 주민들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안덕면 서광 동리의 “광해악의 노래” 와 대정읍의 아저씨밴드 몽생이의 “가을 음악회” 등이 좋은 예이다. 관광객 보다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공연을 통해서 서로 느끼고 공감하는 활동이다. 주민 참여의 폭

이 넓어지고 깊이를 더할수록 마을 만들기 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축제를 통해 공연을 즐기며 함께하는 공연을 원하고 있었다. 가시리 마을의 유채꽃 잔치는 제주시-서귀포시가 격년으로 치루는 기존의 형식을 파괴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즐기면서 준비하고 기획한 축제는 외부 혹은 관광객에게도 큰 관심과 참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광동리 뮤지컬 동아리의 작품인 ‘광해악의 노래’는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뮤지컬을 만들고 그 뮤지컬 배우 역시 지역주민이 되고 공연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큰 활력과 자존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대정 아저씨 밴드 몽생이는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에서 공연에 참여하여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 마을 축제의 대부분은 전문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축제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마을 내에서 문화예술인 또는 동아리 활동가들이 마을 축제에 결합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하다. 다만 축제 프로그램 중 부분적으로 지역 동아리를 끼워 넣는 아주 소극적이고 정형화된 참여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마을의 축제는 마을 축제다워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참여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큰 비용을 지불하여 전문 기획사에 외부 초청가수에 의존하는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동아리가 주체가 되는 기존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V.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느끼고 누리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살기 좋은 마을은 대체 어떤 마을일까? 먼저 마을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제 각각의 개성과 욕구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의미하며 사람이 모여 살아야 마을을 이룰 수 있다. 마을은 사람들 간에 갈등과 개인들 간에 또는 집단 간의 배제하는 논리가 아니라 서로가 공존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질서가 잘 발달된 공간이어야 한다. 마을 구성원들 서로간의 공존의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마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다음으로 마을은 선대에 걸쳐서 수천 년 동안 삶의 흔적이 점철된 삶의 터전으로 인문 사회적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 예술적 가치, 자연 환경적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후대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마을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경제적 풍요로움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토대,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가시리 마을 만들기와 대정읍 아저씨밴드 뽕생이의 사례 연구와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안덕면 서광동리 “광해악 예술단” 뮤지컬 동아리 참여자와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단장, 앞서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대정읍 아저씨밴드 “뽕생이” 회원, 마을 만들기 전문가, 문화기획자이면서 공연 연출가 총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라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

학교 혹은 사회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확충이다.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성장과정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혹은 주민자치센터 등 사회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중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이 많이 도입되어 있으나 교과 공부 중심인 경우가 많이 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문화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 중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진행 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 활동 등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문화 예술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읍,면 지역의 경우 전문예술인 또는 동호인들의 상시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공연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문화예술을 보고 느끼고 공연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2. 마을의 문화예술 동아리와 전문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은 인프라 구축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문화예술 전문가의 지원은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문화예술활동 등에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가 등의 참여주체들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호 협력하여 학습하고 노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3. 국가(행정) 혹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예산이 지원 등 국가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경직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국가(행정)간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과 공공이 개입하여야 하는 부분을 협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며, 마을 만들기 정책을 행정이 기획하고 지원하더라도 주된 추진주체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며,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전제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4.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고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로의 변화

마을 축제는 외부인의 참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좋아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축제와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축제의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가시리 마을의 유채꽃 큰잔치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즐기는 축제로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대정마을 아저씨 밴드인 뭉생이는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 참여로 축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마을의 축제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 관광객만을 위한 축제에서 지역주민들이 즐기며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되어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

VI.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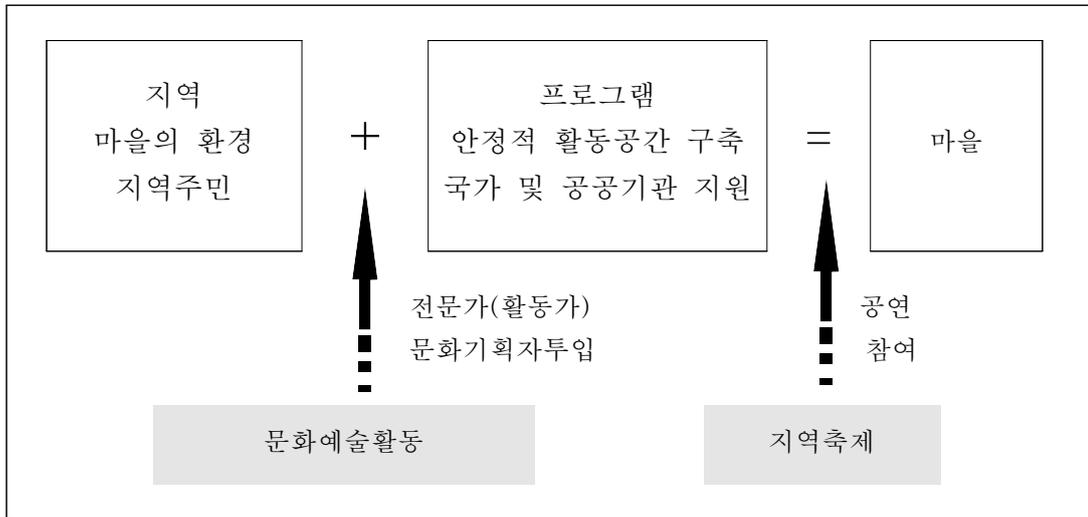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

도시 또는 마을의 양적 성장은 반드시 새로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의 정치 환경은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마을의 새로운 질적 변화의 욕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출시킨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도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시도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전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의 추진주체, 추진대상과 지역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제주도 가시리 마을 만들기 와 대정읍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사례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마을 만들기 활동가,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사례조사와 인터뷰 조사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와 필요성, 구체적인 유형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 결과 마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즉 지역 주민이 자신의 경험 또는 관심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지와 욕구 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전문가의 지원이 적극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기획자의 협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안정적 활동공간을 구축하는 과정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지만 간섭을 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을 지역의 마을 축제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발현될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와 인터뷰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사례조사 및 인터뷰 결과



본 연구는 제주 그리고 대정이라는 지역으로만 국한하여 전국적인 확장성을 지니지 못한 채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인 가시리 마을과 마을 내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저씨밴드 “몽생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대정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직접참여자, 공연기획자, 마을 만들기 전문가, 사업추진 단장을 심층 인터뷰하여 제주지역의 농어촌 마을의 문화예술활동의 실태와 현장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을은 구성원 개개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기 이전에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욕구를 최대한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마을 만들기는 전자의 전제 조건들을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공간과 그 공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용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

람이다. 마을 사람 중심 주도가 아닌 행정 주도의 사업은 주민자치의 약화와 단체 자치의 집중과 행정 권력의 강화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각종 보조사업은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인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소위 마을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활동가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전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수행방식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인적 자원이 취약한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과 행정, 전문가 그룹의 동반자적인 관계 정립(거버넌스)을 통해서 참여 주체의 부족한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주의 읍, 면지역은 대부분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읍, 면 지역의 경우 구성원들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 농촌의 문제를 농업의 문제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 개발사업이라는 페러다임의 전환과 농촌 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자원의 활용방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 예술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사업 또는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축제 준비에서부터 공연의 주체로 참여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훈련과 마을 주민으로써의 성취감, 자존감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는 결과 보다 과정을 중시하여야 한다.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학습하고 협력하고 삶의 감동과 행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의미 있는 것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현실 속에서 담보 될 수 있다.

마을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삶이란? 이란 물음에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자칫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도 하거니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만큼 이나 인간의 욕구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여가 시간에 다양한 취미 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은 생활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치며 노래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공연 무대에서 섹스폰 독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존감과 존재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술을 통해서 소통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을 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을 활동가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정.(2013). 문화복지 개념의 형성과 갈등: 사회적,정치적 과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수정.(2007).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로디자인 대학원 콘텐츠디자인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다희.(2017). 문화마을지원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감천문화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동명대학교 대학원 언론영상광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병준.(2010). 도시재생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도시설계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연진.(2010). 예술창작촌의 장소형성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찬호.(2002).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p71.
- 김치선.(2012).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익산시 사례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승국(1998). 일본의 주민참가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 마찌즈꾸리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현.(2008). 마을만들기 사업 구성요소로서의 새로운 예술공동체 모델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물관 미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 서성태.(2002).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p10.
- 서연호.(2004) 「일본지역연구」 소화.
- 송영호.(2006).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도연.(2001).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략에 관한 연구: 경주,춘천,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소영.(2014).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매개로 형성된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례 연구. 창조산업연구.

- 이상우.(2004).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획의 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5). 지역문화관광 상품화 과정의 문화매개집단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혜.(2014). 마을만들기 지역주민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 주체성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2015).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사례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희.(2008).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다영.(20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공간구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 연구. 서울연구원.
- 조덕진.(2008).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를 통한 도시활성화 방안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지금종(2011).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활동-제주도 가시리 마을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6. pp.311-339.
- 최정환(2006). 마을만들기의 전략과 과제-지역의 재구성. 강원발전연구원 p.1.
- 황정주.(2009). 마을만들기에서 지역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고찰.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2011) 문화지도 제주 가시리.
- 2017년 제주 유채꽃 축제 홈페이지(<http://www.jejuflowerfestival.com/>)
- 제주도민일보 2012년 5월 29일자 기사
- 대정아저씨밴드 ” 몽생이 “ 정관
- 2016 몽생이 예술제 리플릿

<Abstract>

A Research on Creating Jeju Regional Villages that Utilize Cultural Arts

Academic Supervisor: Hwang Kyung-soo

Major: Local Autonom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proposing methods to activate the creation of Jeju regional villages that utilize its own cultural arts. This could be said to be an attempt to come up with communal awareness within the people and to resolve regional issues. The various attempts to create these villages can be said to be an effort to change the situation into a more positive one and there definitely is a need to research into the activation plan aggressively to reach such affirmative results.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a city or a village inevitably demands a transition into a new qualitative development as well. Not only that,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a local autonomy era raises political awareness of the people who are constituents of the village, making them participate in policy implementation decisions and ultimately inducing them to let out the desire for new qualitative changes in the village in several ways. The attempts to

several types of village forming that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on a national basis recently is just that. This research first looked in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cept of village making the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village makings in the domestic scene, a further investigation was executed to look into the agent who launched the village making process, the target people and their location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project. The case studies of the Gasiri Village and the activities of the cultural art organization of the Daejung-eup Village was especially paid attention to as to find out how cultural arts could contribute to activating the village making process.

In-depth interviews of regional resident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village making process through cultural arts, activists, and the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ctual running programs were conducted to find out what kind of effects it had on the village making activation project as well as to various cultural art programs. The research was then carried out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s that are necessary for any problems that currently existed within the scope of the project.

As the first proposal to activate Jeju regional villages that utilize cultural arts, there should be various provisions of opportunities given to the regional residents to enjoy the cultural arts. Second, a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st professional artists and village cultural arts organizations. Through the networking, the challenges and limits faced by the village in terms of using its cultural art resources should be overcome. Thir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governance between the state(administrative body) or local authority with the regional residents to cooperate and discuss about in what parts the village is lacking and in what parts the government needs to intervene. However, even in the case where intervention might be perceived to be necessary, the principles of the regional people should be made a priority and even if the village making policy was headed, planned and

supported by the administrative body the true agent of the project should be the local residents. At the same time, the residents themselves should be given the incentive, the necessity and motivation. Fourthly, through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village festivals that are organized and enjoyed by the local people themselves, the festivals must become one that can be run and enjoyed independently and not just relying on the participation of outsiders. The festival's satisfaction and accomplishment rate can only be high if it can be enjoyed mutually along with the local residents.

This paper is limited in proposing the village activation plan without considering the expansion into other domestic scenes as it laid its boundaries within Jeju and one region called Daejung. However, there is a lot of significance in that it looked into the actual farming and fishing village sites and situations such as carrying out specific investigation of successful Jeju case studies of the Gasiri Village and the independently functioning male band "Monseng-ie" as well as carrying out in-depth interviews with direct participants of Daejung region cultural art fields, performance planners, professional village making experts and executive heads of projects.

It is hoped that before the villages demand its constituents to act upon its social obligations and roles, it could lay out the foundation to expect active deliberations and actions which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creation of villages that could be shared in its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possessed by individuals so that every stakeholder residing in the village could participate together.

Keywords: Creating villages, Cultural Arts, Village Festivals, Regional Culture

